

유엔난민기구 사명 UNHCR Mission Statement

UNHCR은 전 세계 난민보호와 난민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국제적인 행동을 이끌고 조정할 의무를 UN으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UNHCR의 주요 목표는 난민의 권리와 복지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 목표를 이루고자 유엔난민기구는 모든 사람이 비호를 신청할 수 있고, 타국에서 안전한 피난처를 찾으며, 자발적으로 귀환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난민들이 고국으로 돌아가거나 다른 나라에 영구 정착하는 것을 도움으로써 난민의 어려움에 대한 영구적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UNHCR의 상임이사회 및 UN총회는 난민 외에도 본국으로 귀환한 귀환민, 국내 실향민, 그리고 국적이 없거나 논란이 되는 무국적자들을 포함한 이들에 대한 유엔난민기구의 개입을 허가 하였습니다.

UNHCR은 강제적인 이주를 줄이고자 국가 및 국가기관이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인권이 보호되는 환경을 만들어 가도록 협력하며 기구의 모든 활동 가운데 아동 및 여성을 보호하고 그들이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도모합니다. UNHCR은 각국 정부, 지역기구,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와 협력합니다. UNHCR은 참여의 원칙을 고수하며 난민을 포함한 기구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의 의견이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기구의 결정에 반영되는 것이 마땅함을 믿습니다.

UNHCR Global Report 2013 연례보고서

전 세계 난민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유엔난민기구의 연례보고서 한글발행본입니다



UNHCR
The UN Refugee Agency
유엔난민기구

유엔난민기구는 전문성, 책임성, 투명성의 원칙 아래 여러분의 후원금을 소중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 전문성: 영구적인 난민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전문 UN 기구

- UN 총회로부터 임무를 부여 받아 활동하고 있는 유엔난민기구는 난민보호와 난민문제의 영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전문 UN 기구입니다.
- 전 세계적으로 긴급상황 발생 시 72시간 내에 최대 60만 명을 지원할 수 있는 대응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 책임성: 책임 있는 난민보호 활동

- 유엔난민기구는 보호와 지원을 필요로 하는 난민을 비롯한 보호대상자들 곁을 항상 지킵니다. 도움이 필요한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해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상황이 안전하게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책임있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투명성: 투명한 후원금 운영

-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후원금은 전액 유엔난민기구의 난민보호 사업에 사용됩니다.
- 민간부문 후원금 전액은 익월 유엔난민기구 본부로 송금되어 유엔난민기구의 연례 계획과 긴급구호 대응상황에 따라 전 세계 난민을 보호하는 활동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는 유엔난민기구 본부의 승인 없이는 후원금을 임의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UNHCR
The UN Refugee Agency
유엔난민기구

난민을 보호하고 영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UN 기구입니다.

www.unhcr.or.kr

TEL: 02 773 7272 E-MAIL: withyou@unhcr.or.kr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6 (을지로 1가 16) 금세기빌딩 7층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UNHCR Global Report 2013 연례보고서

전 세계 난민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유엔난민기구의 연례보고서 한글발행본입니다

표지이야기



15페이지 이야기 참조

발행인 **더크 헤베커**
 발행처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발행일 **2014년 7월**
 제 공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대외협력(PSFR)팀**
 디자인 **이팝 www.eepop.co.kr**

※ 모든 이미지의 저작권은 유엔난민기구의 활동을 도와주신 아래 사진 작가들에게 있습니다.
 주 사진작가 : Sebastian Rich
 부 사진작가 : J. Ose, B. Heger, E. Compte Verdaguer, A. Solumsmoen, J. Kohler, P. Behan, H. Caux, S. Baldwin, B. Sokol, R. Rocamora, D. Mbaier

contents

- 03 UN 난민고등판무관 인사말
- 04 한 눈에 보는 2013 세계 난민 동향
- 05 365 난민보호
- 08 함께 대응하는 긴급구호
- 14 생존과 재건을 위한 필수 지원
- 20 재정 보고
- 23 한국 모금 현황
- 24 한국대표부 활동 보고

“
 제 조국 시리아는
 사람의 심장이 살아 움직이고 있는 한
 가장 가까이에서 자옥을 경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 시리아 다라 지역 출신 80세 시리아인

유엔난민기구는 전 세계 123개국 459개 사무소에서
 7,500여 직원들이 4,200만 난민을 비롯한
 보호대상자들을 보호·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서울에 위치한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는
 2001년 대한민국 정부의 초청으로 개소된 이래,
 정부 및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국내 난민보호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전 세계 난민의 상황을 알리고
 한국사회의 보다 적극적인 후원과 참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유엔난민기구 제네바 본부는 매년 6월 20일 세계 난민의 날 즈음
 연례보고서(Global Report)를 발행하여 지난 한 해 동안의
 난민보호 및 지원 현황을 각국 정부와 파트너, 후원자 분들께
 알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후원자 및 파트너들을 위해
 2013 연례보고서의 주요 부분을 발췌하여,
 한국어로 발행하였습니다.
 한국어 연례보고서 발췌본은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홈페이지(www.unhcr.or.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3년을 돌아보며

2013년에도 분쟁은 끊이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어, 시리아는 이제 강제 이주와 인도주의 비극을 대표하는 국가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2014년 3월 시리아 분쟁이 발생한 지 3주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9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시리아 안팎에서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 받고 있는 이들 중 최소 절반은 어린 아이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새로이 발생한 난민 대부분(약 200만 명)이 시리아 사태로 비롯되었으나, 그렇다고 시리아가 유일한 긴급구호 발생 지역은 아니었습니다. 남수단,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미얀마, 콩고민주공화국에서도 수백, 수천만의 사람들이 분쟁, 박해, 인권침해 등을 피해 국경을 넘었으며, 이보다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이 국내실향민이 되어 고향이 아닌 낯선 땅에 정착해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2013년은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은 한 해였습니다. 슬프게도 2014년 또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2013년 한 해 동안 4,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유엔난민기구의 보호와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난 20년 간 가장 많은 수의 신규 난민이 발생한 해이면서 긴급구호 해결에 많은 시간이 걸렸던 지난 한 해, 유엔난민기구는 시급히 필요한 지원과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였고, 담요, 물통, 침구, 위생키트, 그리고 다른 기타 구호물품들을 가장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유엔난민기구는 필리핀 하이엔 태풍으로 집을 잃은 이들에게 텐트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우간다에 있는 콩고 난민 아동들을 학교에 보내게 되었으며, 남수단에 있는 수단 난민에게는 모기장을 전달하고, 에콰도르에 있는 콜롬비아 난민들에게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레바논, 요르단, 이라크, 니제르, 부르키나파소, 에티오피아 등지에서 안전을 되찾은 난민들을 방문하면서, 폭력이 어린 아이들에게 미치는 엄청난 영향을 다시금 실감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절대로 봐서는 안 될 공포를 목격하게 되면, 그 영향은 매우 처참하고 또 오래 지속됩니다. 2013년 유엔난민기구는 난민 아동들에게 심리치료를 제공하여 이들의 트라우마를 치료하기 위해 노력했고, 강제노동, 착취, 조혼으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이 유엔난민기구의 보호와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원활한 보호활동을 위해서는 여러분과 같은 개인, 기업, 재단으로부터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모든 후원은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후원은 더 많은 유엔난민기구 직원을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파견시켜 더 많은 구호물품을 전달하게 함으로써 기구의 보호 활동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유엔난민기구의 활동 유지비는 거의 대부분이 자발적 후원에 의해 마련되며, 따라서 여러분의 도움 없이는 절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습니다. 전 세계 난민보호에 함께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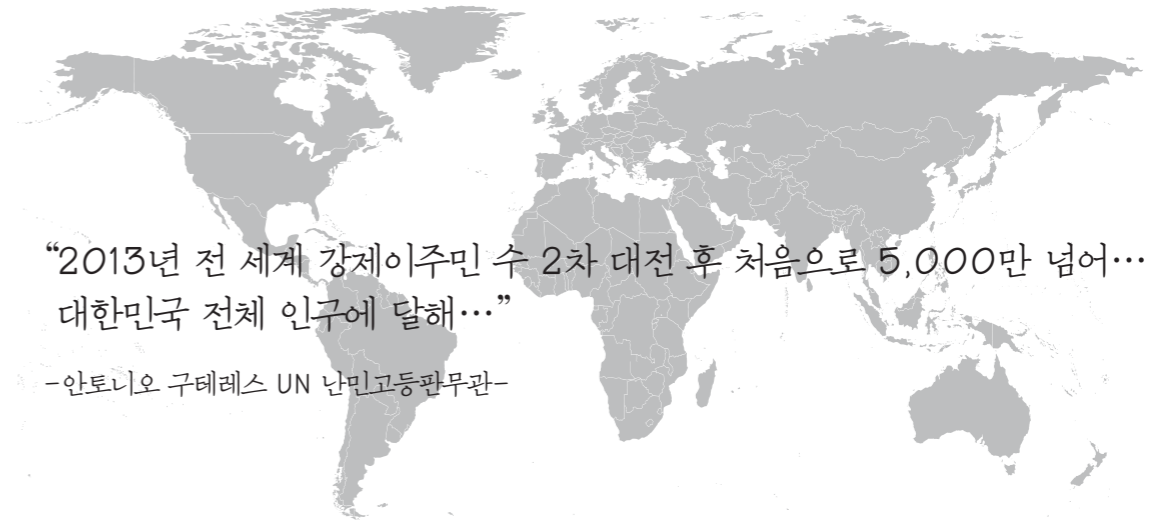
안토니오 구테레스(António Guterres)

UN 난민고등판무관(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2013 Review - Trends at a glance

한 눈에 보는 2013 세계 난민 동향

2013년 분쟁, 박해, 일반화된 폭력, 혹은 인권 유린의 이유로 고향을 떠나야 했던 강제이주민의 수는 전 세계적으로 5,120만 명에 달했습니다. 이 수치에는 난민 1,670만 명, 국내실향민 3,330만 명, 120만 명에 가까운 비호신청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5,120만 명으로 이루어진 국가가 있다면 이는 전 세계에서 26번째로 큰 나라가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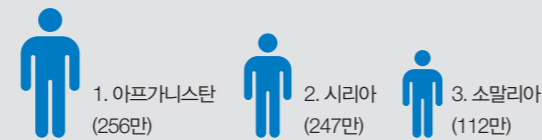
“2013년 전 세계 강제이주민 수 2차 대전 후 처음으로 5,000만 넘어…
대한민국 전체 인구에 달해…”

-안토니오 구테레스 UN 난민고등판무관-

5,120만 명 전 세계 강제이주민

- 난민: 1,670만
- 유엔난민기구에 등록 1,170만
-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에 등록 500만
- 국내실향민: 3,330만
- 비호신청인: 120만

최다 난민 발생국



유엔난민기구 등록 난민 수의 절반 이상(53%)이 아프가니스탄 (256만), 시리아 (247만), 소말리아 (112만) 3개국에서 발생하였습니다.

86% 개발도상국 거주

현재 전체 난민 중 86%가 개발도상국에 거주 중입니다. 이는 10년 전 70%에 비해 계속 증가하여, 2013년에는 지난 20년 간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한편, 세계 최빈국들에서는 280만 명의 난민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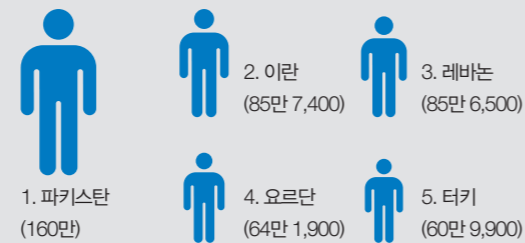
41만 4,600명 귀환민

2013년 한 해에 걸쳐 41만 4,600명이 자발적으로 고국으로 귀환했습니다. 이들 중 3분의 2가 시리아(14만 800명), 콩고민주공화국(6만 8,400명), 이라크(6만 900명)로 귀환했으며, 이 수치는 지난 25년간 네 번째로 낮은 기록입니다.

매일 3만 2,200명 강제이주민

올해 하루 평균 3만 2,200명이 분쟁과 박해를 피해 자국 내에서 혹은 국외에서 보호받을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 숫자는 2012년의 23,400명, 2011년의 14,200명에 비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다 난민 비호국



가장 많은 수의 난민을 수용하고 있는 국가는 파키스탄(160만)이었으며, 이란 (85만 7,400), 레바논 (85만 6,500), 요르단 (64만 1,900), 터키 (60만 9,900)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540만 명 1인당 국내총생산(GDP) 미화 5,000달러 미만국 거주

유엔난민기구의 보호 아래 있는 난민 중, 540만 명 이상(46%)이 1인당 국내총생산(GDP) 미화 5,000달러 미만인 국가들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21개국 재정착

작년 한 해 동안 유엔난민기구는 난민 9만 3,200명의 재정착 접수를 도왔으며, 7만 1,600명이 유엔난민기구의 지원 아래 타국으로 재정착했습니다. 각국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13년 총 21개국이 9만 8,400명 (유엔난민기구의 지원을 받지 않은 사람도 포함)의 재정착을 받아들였으며, 이 중 미국이 가장 많은 재정착 난민(6만 6,200명)을 받아들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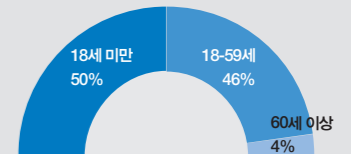
1,070만 명 2013년 신규 실향민

2013년 한 해 동안 국내실향민 820만 명, 난민 250만 명을 포함한 총 1,070만 명의 사람들이 분쟁과 박해를 피해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국내실향민 수는 지금까지 최고 기록이며, 난민 수는 1994년 이래 최고 기록입니다.

110만 명 비호신청

2013년 한 해 동안 약 110만 명의 사람들이 비호와 난민지위를 신청했고, 전 세계 유엔난민기구 사무소는 이 중 19%(20만 3,200명)를 등록했습니다. 독일이 10만 9,600명의 비호신청건수를 기록하면서 1999년 이래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개인신청을 접수했고, 미국(8만 4,400명), 남아프리카공화국(7만 명)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50% 18세 미만 어린이



2013년 전체 난민의 50%가 18세 미만 어린이들이었으며, 이는 지난 10년 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1,000만 명 무국적자

2013년에는 적어도 1,000만 명의 사람들이 국적이 없는 삶을 살아야 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반면 각 정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무국적자는 75개국 350만 명에 그쳤습니다.

5명 중 1명 자국민 대비 난민

레바논은 국민 1,000명 당 난민 178명을 비호하면서, 1980년 이래 난민 비호국으로서 가장 큰 부담을 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요르단 (88명)과 차드(34명)가 그 뒤를 이어 자국민 대비 많은 난민을 비호하고 있습니다.

2만 5,300명 보호자가 없는 어린이

2013년 비호신청 중 약 2만 5,300건이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와 헤어져진 어린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은 77개국에서 확인되었으며, 주로 아프가니스탄, 남수단, 소말리아 출신 어린이들이었습니다. 이는 이러한 정보를 수집한 2006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유엔난민기구 2013 글로벌 동향 보고서 (2013 Global Report)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65 days together

365일 난민보호

1월

후원자님들 덕분에, 유엔난민기구는 2013년 한 해를 힘차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유엔 난민기구는 내전으로 타지에서 피난 중이던 라이베리아 난민 155,000명을 23년 만에 성공적으로 고향으로 돌려보냈습니다.



2월

여러분의 후원으로, 유엔난민기구는 시리아 북부 알레포(Aleppo) 지역 임시 난민촌에서 지내고 있는 수천 명의 국내실향민들에게 담요 15,000개, 텐트 3,000개를 포함한 첫 긴급구호 방안 물품을 전달하였습니다.



3월

주변국에서 난민으로 등록된 시리아인의 수가 100만 명에 달했습니다. 유엔난민기구와 협력기관의 보호를 받고 있는 100만 명의 난민들은 후원자 여러분의 도움을 절실히 기다리며 레바논, 요르단, 터키, 이집트, 이라크 등 이웃 국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7월

유엔난민기구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난민촌에 거주하고 있는 11,000명의 수단 난민과 콩고 난민들에게 식량을 보급하였습니다. 한편,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난민 40,000명 이상이 유입된 콩고민주공화국에서는 지역 당국과 협력하여 난민들을 국경 지역으로부터 더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켰습니다.



8월

시리아 어린이 100만 명이 난민으로 등록되었습니다. 후원자 여러분은 유엔난민기구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인도주의 활동을 도와주셨습니다.



9월

유엔난민기구는 지역당국과 협력하여 미얀마 남동부에서 발생한 홍수로 피해 입은 카인(Kayin)주 이재민 16,400명에게 방수천, 담요, 모기장, 침구, 조리도구, 양동이, 물통, 위생물품을 공급하였습니다.



4월

유엔난민기구는 미얀마 라킨(Rakhine) 주에 있는 국내실향민 14,400명을 위해 대나무로 지어진 공동주택 건립을 마쳤으며, 또다른 28,000명에게는 텐트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2013년 6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5월

후원자님들 덕분에, 유엔난민기구는 니제르에 거주하는 말리 난민 50,000명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부르키나파소, 모리타니아와 같은 주변국에는 말리 난민 175,000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6월

6월 말 난민으로 등록된 시리아인의 수가 17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시리아 난민의 수는 불과 몇 개월 사이에 급속도로 증가했으며,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10월

남수단에 위치한 유수프 바틸(Yusuf Batil) 난민촌에서는 한 때 일주일 동안 500명이 대형 간염에 걸렸습니다. 유엔난민기구와 협력기관의 공공보건 사업으로 이 지역 대형 간염의 확산을 주당 감염자 수 4명 이하의 수준까지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11월

초강력 태풍 하이옌으로 인해 대규모 침사가 발생하자, 유엔난민기구는 필리핀 긴급구호를 위해 이재민 306,000여 명에게 가족 텐트, 태양열 손전등, 방수천, 방수용품, 담요, 조리도구, 물통을 제공하였습니다.



12월

유엔난민기구와 협력기관들은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내 종파분쟁으로 발생한 실향민과 이웃 국가 콩고민주공화국으로 피난을 떠난 난민들에게 필요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이 분쟁으로 2013년 한 해 동안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서 난민 48,000명이 새로이 발생했습니다.



Responding together: Emergencies

함께 대응하는 긴급구호



인간이 만든 분쟁이든 자연재해로 발생한 것이든, 긴급구호 상황은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고통과 트라우마를 안겨다 줍니다. 시리아 내전과 필리핀을 강타한 태풍은 연일 신문지면의 헤드라인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이나 수단과 남수단 국경 지역에서 계속되고 있는 분쟁들은 우리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에선 여전히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웃들이 죽어나가고 건물이 무너지는 가운데 집을 떠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2013년 후원자님 덕분에, 유엔난민기구는 긴급구호 지역 9개국에 359명의 긴급구호 전문 인력을 급파하고, 15,000톤이 넘는 구호물품을 보내 전 세계 수백만 명의 난민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시리아

시리아 내전이 발생한 지 3년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유엔난민기구는 후원자님 덕분에 시리아 내전으로 고통 받고 있는 수백만 난민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2013년, 유엔난민기구는 내전으로 상처입은 땅, 시리아에 머물고 있는 국내실향민 320만 명을 도왔으며, 이웃 국가로 유입된 시리아 난민 230만 명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선두 기구로서 맡은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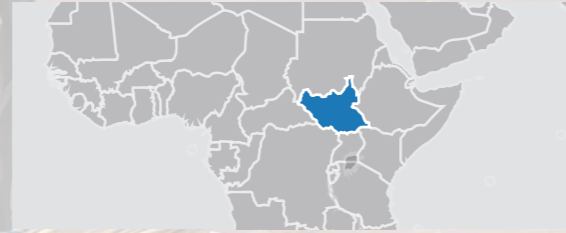
레바논은 시리아 난민을 가장 많이 받아들인 이웃 국가입니다. 2013년 후원자님은 유엔난민기구와 함께 레바논에서 다음과 같은 시리아 난민보호 활동을 도와주셨습니다:

- * 858,641명의 난민을 등록하였습니다.
- * 586,146명에게 위생키트를 보급하였습니다.
- * 232,590명에게 연료구입을 위한 현금을 지원하였습니다.
- * 226,577명에게 따뜻한 보온 담요와 이불을 제공하였습니다.
- * 178,489명에게 1차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 * 99,489명의 난민을 위해 비바람을 견딜 수 있는 임시 거처를 제공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 * 52,000명 이상의 아이들에게 초등교육을 제공했습니다.



남수단

2013년, 수단과 남수단 국경 지역에서 계속된 분쟁으로 26,166명의 사람들이 고향과 집을 떠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끔찍한 폭격에서 살아남아 아끼던 집을 떠나야만 했던 이들은 유엔난민기구가 관리하는 난민촌에 이미 거주 중이던 수단 출신 난민 20만 명과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2013년 12월, 남수단 정부와 반대세력과의 분쟁은 전국으로 빠르게 확산되었고, 이로 인해 155,000명의 난민들이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우간다, 케냐, 에티오피아로 달아났습니다. 후원자님의 지원으로 유엔난민기구는 남수단 난민촌에 거주하고 있는 난민들을 계속해서 보호하는 동시에, 갓 국경을 벗어난 신규 난민들의 보호에도 노력을 기울일 수 있었습니다.



필리핀

2013년 11월 8일, 필리핀을 덮친 태풍 하이옌으로 6,000명 이상이 사망했고, 410만 명이 집을 잃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후원자님의 소중한 후원으로, 유엔난민기구는 이 강력한 열대성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 487,000명을 위해 긴급구호 활동을 펼쳤습니다.

유엔난민기구는 담요 80,000개, 비바람을 막아줄 방수천 60,000개, 텐트 10,000개, 물통 30,000개, 조리도구 15,000개, 태양열 손전등 15,000개를 공급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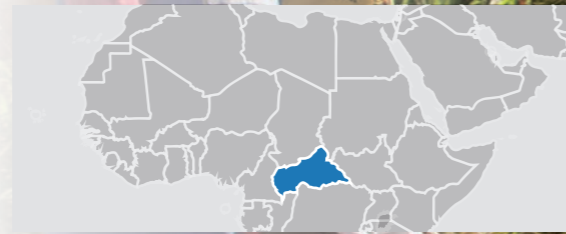


중앙아프리카공화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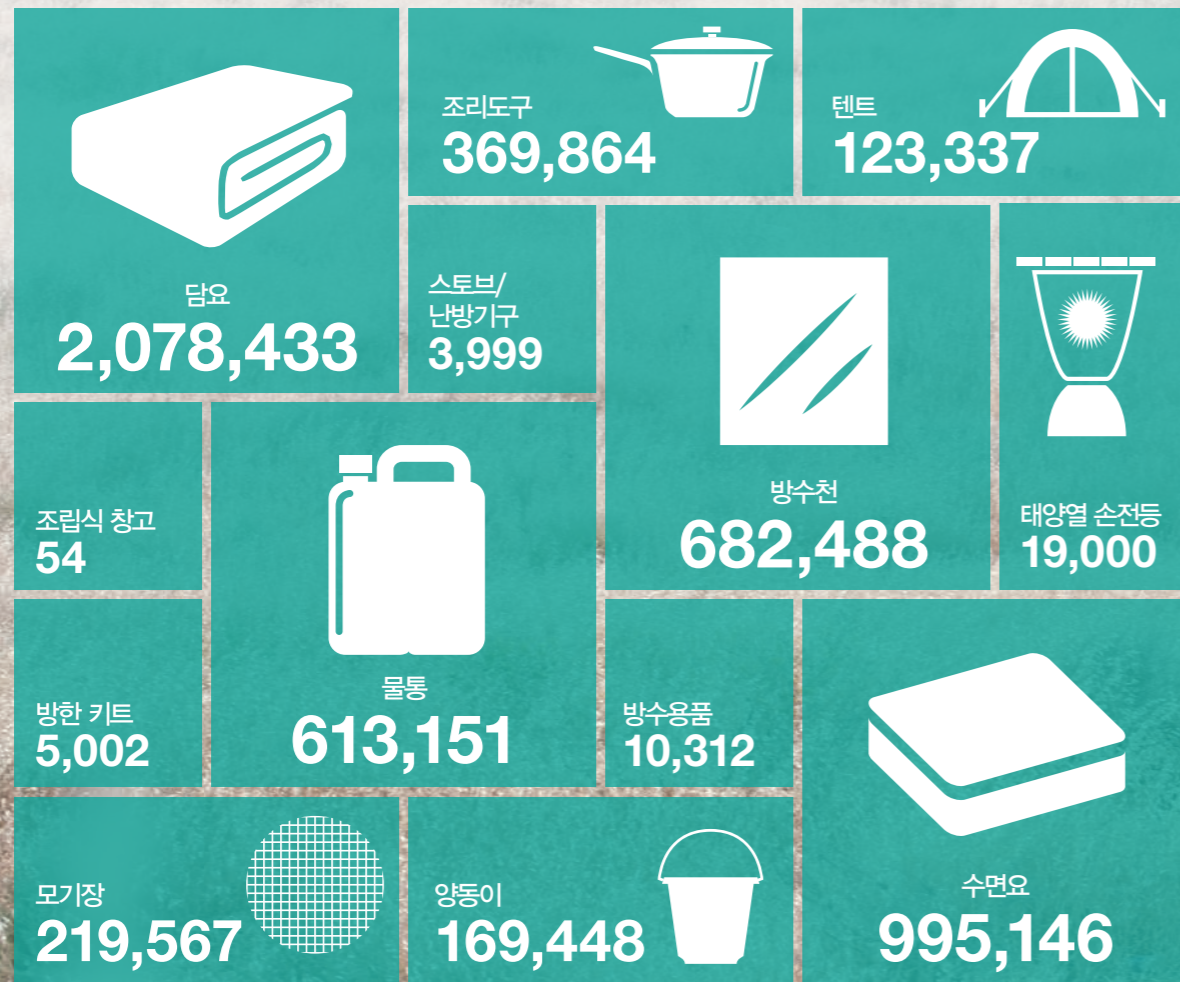
2013년, 사방이 육지로 둘러싸인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 살고 있는 민간인들의 삶은 힘들고 처참했습니다.

12월, 무슬림 기반의 셀레카(Selaka)세력과 기독교 기반의 반-바라카(Bakka) 무장세력 사이에 큰 규모의 분쟁이 일어났고, 이는 무고한 민간인들을 혼란 상태에 빠뜨렸습니다.

현재, 약 50만 명이 국내실향민이 되었으며, 86,000명은 이웃 국가로 피난을 떠났습니다. 유엔난민기구는 73명의 직원과 함께 밤낮으로 구조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2013년 긴급구호 물품 지원현황 - 총 15,000톤



숫자로 보는 2013년

4,000만 명 이상
보호대상자

98%
자발적 후원금으로 운영

123개
유엔난민기구 활동국

118,200명
2013년 상반기
재정착 혹은 본국 귀환민

460회
긴급구호 임무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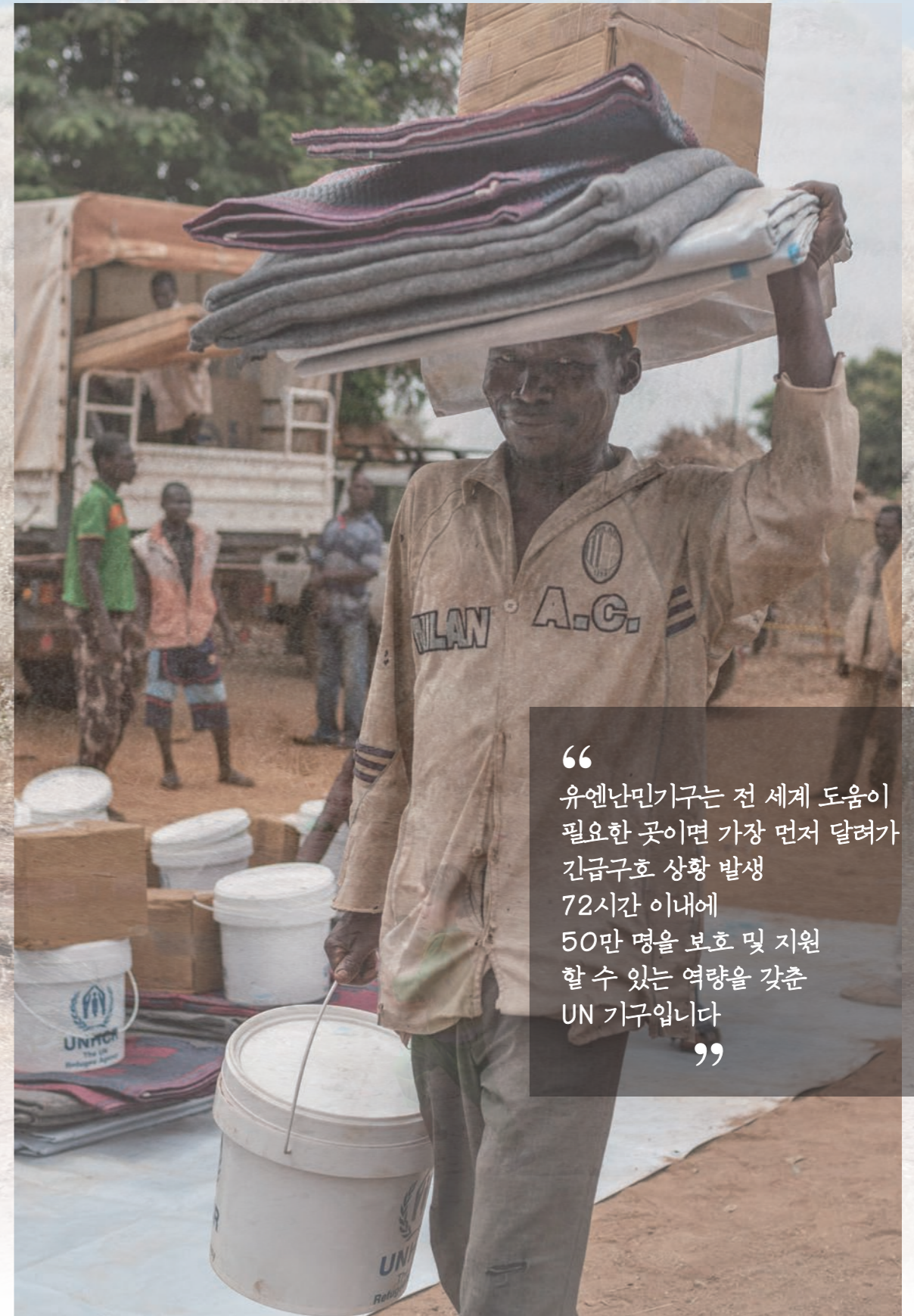
400만 명
필리핀 태풍 하이옌으로 집을 잃은 사람

100만 명
유엔난민기구 등록 시리아 난민 어린이

10주년
수단 다르푸르 분쟁 발생

250만
유엔난민기구가 보호한
콩고민주공화국 국내실향민

155,000명 이상
본국 귀환한 라이베리아인



“ 유엔난민기구는 전 세계 도움이 필요한 곳이면 가장 먼저 달려가 긴급구호 상황 발생 72시간 이내에 50만 명을 보호 및 지원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UN 기구입니다 ”

Surviving and thriving together

생존과 재건을 위한, 필수 지원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유엔난민기구의 활동이 전 세계 긴급구호 현장과 분쟁 지역 곳곳으로 펼쳐지고 있는 이 순간, 후원자님 덕분에 유엔난민기구는 난민들에게 꼭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난민들이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벗어나 목숨을 부지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을 넘어, 이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또다시 일어설 수 있게끔 해줍니다. 2013년 후원자님은 유엔난민기구와 함께 보호와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전 세계 3,580만 명의 사람들에게 더없이 값진 도움을 제공해주셨습니다.

몸을 누일 수 있는 임시 거처

후원자님 덕분에, 집을 잃은 수백만의 난민들을 거친 기상 여건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에게 필요 물품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유엔난민기구는 집을 잃은 수백만의 난민들과 가족들에게 임시 거처와 필요 물품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주거공간으로 쓰일 공공건물을 지어주기도 하였고, 주거 렌트비를 감당하기 힘든 이들에게는 현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더불어, 유엔난민기구는 약 500만 개의 매트, 담요, 모기장, 물통, 위생키트, 조리도구, 의류, 히터, 태양열 손전등과 같은 물품을 공급했습니다. 겨우 목숨과 옷가지 몇 벌만을 부지한 채 집을 갑작스레 떠나야만 했던 난민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품들입니다.



이야기. 하나

알마세(Almase) - 폭격을 피해 안전한 곳으로

67세의 알마세는 이제 9세가 된 손녀, 제나이브(Zenaib)를 사랑스럽게 바라봅니다. 이 아이를 혼자 내버려두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손녀 제나이브는 알마세의 남겨진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안토노브(antrov) 폭격기가 마을을 덮쳤을 때, 할머니인 알마세는 손녀 제나이브의 손을 잡고 폭격을 피해 달아났습니다. 허뿔연 먼지가 가라앉자 마을에는 시체와 부서진 건물들이 즐비했고, 이를 본 알마세는 고향을 떠나야 할 때가 왔음을 깨달았습니다. 언제 또 폭격이 시작될 지 몰랐기 때문에 마을은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제나이브의 부모와도 소식도 끊겨 생사조차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할머니와 손녀는 손을 꼭 맞잡고 안전한 곳을 찾아 남수단으로 긴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피난을 가는 도중 음식을 구하는 일이 쉽지 않았기에, 유엔난민기구가 운영하는 난민촌에 도착했을 당시 그들은 몹시 굶주리고 지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후원으로 유엔난민기구는 알마세와 제나이브에게 주거공간으로 적합한 유엔난민기구 텐트를 비롯해, 물통, 조리도구와 같은 필수물품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생존과 건강을 위한 영양

후원자님 덕분에, 난민 어린이들을 포함한 난민들에게 영양이 풍부한 더 나은 식량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유엔난민기구는 고향을 강제로 떠나야 했던 수백만의 난민들과 실향민들에게 식량을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난민촌 내 더 나은 식량 배급을 통해, 또 도시에서는 재정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후원자님의 소중한 후원은 영양실조를 예방하고 어린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을 돕기 위해 식량의 질을 높이는 데에도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이야기. 둘 말리(Marley) - 배움을 위한 뱃속 충전

6살 말리는 학교에서 점심을 먹으며 콧노래를 부릅니다. 말리는 분명 쌀과 콩이 들어간 맛있는 닭고기 스투를 즐기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말리는 평소 배고픔에 익숙해 있습니다.

말리가 4살이었을 무렵, 말리의 가족은 오랜 기간 지속된 콜롬비아 내전 때문에 고향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 이후, 말리의 가족은 판자촌에서 불법으로 생계를 꾸려나가기야 했습니다. 일거리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의 엄마 다이아나(Diana)는 말리와 그의 형제들을 먹여살리기 위해 온갖 고초를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유엔난민기구와 협력기관들은 혁신적인 교육센터를 설립해 말리와 같이 교육과정에서 뒤처진 아이들을 위해 보다 유연한 수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하루에 건강한 세끼 식사를 제공하여 말리가 살고 있는 판자촌의 꽤나 충격적인 영양실조율을 개선하였습니다.

말리와 그의 학급 친구들에게 배부름은 더 나은 배움과 더 밝은 미래를 뜻합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의료 보건

후원자님 덕분에, 난민들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난민촌에서 전염병은 질병과 사망의 주된 원인입니다.

후원자님은 유엔난민기구가 대규모의 백신 및 의료 사업을 수행하여 소아마비나 홍역과 같은 질병으로부터 난민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난민촌 내 머물고 있는 난민 어머니와 아기들에게 산부인과 케어를 제공하는 등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야기. 셋 일라인(Iline) - 사막으로의 피난

태어난 지 이제 하루도 채 안 된 일라인의 엄마 미스린(Misreen)은 벌써부터 아기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갓난아기는 고국 시리아가 아닌, 이웃 나라 요르단 자타리 난민촌이 위치한 사막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아기의 아빠는 아직도 시리아에 머물고 있습니다. "남편이 너무 걱정돼요. 그가 빨리 이곳으로 와서 딸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딸 정말 예쁘죠."

시리아에서 요르단 국경을 넘는 위험한 피난 당시, 미스린은 만삭 상태였습니다. 현재 그녀는 한 살짜리 아들 아마르(Amar) 그리고 시댁 식구들과 함께 유엔난민기구 텐트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난민촌에서의 삶은 고단하지만, 미스린은 이곳에서 받은 친절하고 훌륭한 의료 서비스에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일라인의 탄생을 도와준 헌신적인 산파를 비롯하여 아마르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준 백신까지, 유엔난민기구와 의료보건 담당 협력기관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요르단 현지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생존을 위한 물과 위생

후원자님 덕분에, 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깨끗한 식수, 더 나은 위생 시설을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북미는 난민촌에서 깨끗한 식수와 적절한 위생시설을 제공하는 것은 건강 유지 및 질병 발생 예방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식수부족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며, 유엔난민기구의 조사에 의하면, 전 세계 난민촌 중 절반이 넘는 곳이 충분한 식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3년 유엔난민기구는 식수 전문가 25명을 파견하여 식수 공급 환경을 개선하였고, 건강 프로그램과 공동 추진하여 심각한 질병의 확산을 막고 난민 거주 지역 보건 수준을 향상시켰습니다.



이야기. 넷 아이샤(Aisha) - 물은 곧 생명입니다

다른 꼬마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세 살 된 아이즈(Azz)는 목욕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엄마 아이샤가 아이즈를 빨간 목욕통에 넣고 비누와 물로 씻어대면 아이즈는 연신 엉엉 울어댁니다. 난민촌에서 아이들과, 의복, 또 머물고 있는 텐트를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유엔난민기구 덕분에 엄마 아이샤는 이제 이 일을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유엔난민기구는 아이샤와 그녀의 가족이 머물고 있는 남수단 난민촌에 깨끗하고 안전한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현재 이 난민촌에서는 난민 한 명이 매일 30리터의 용수를 공급 받고

있습니다. 이는 유엔난민기구의 평균 용수 공급량인 20리터를 훨씬 웃도는 양입니다.

아이즈가 엄마의 정성스러운 노력을 알아주는 것 같진 않습니다. 엄마가 한 눈을 판 사이, 아직 비누 냄새를 맡을 수 있을 만큼 깨끗이 씻겨진 몸에 또다시 먼지와 흙을 마구 묻혀대기에 비뽀합니다. 하지만 청결을 향한 엄마의 노력 또한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아이샤는 벌써부터 저녁에 아이즈를 한 번 더 목욕시킬 물을 따뜻하게 데우느라 분주합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교육

후원자님 덕분에, 더 많은 난민 아이들이 학교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후원자님의 도움으로 유엔난민기구와 협력기관은 전 세계 13개국 이상의 난민 어린이들에게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난민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학교란 배움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정기적인 학업은 궁극적으로 이 아이들에게 스스로와 가족들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자원과 도구를 제공하고, 따라서 현재 그리고 앞으로 아동 노동착취를 근절시키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이야기. 다섯 나스토(Nastho) - 학교를 꿈꾸다

나스토에게 학교라는 곳은 씩씩하고도 달콤한, 집에 대한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곳입니다. 알샤바브(Ai Shabaab) 반군 조직이 소말리아를 점령하면서, 어린 소녀 나스토에게 학교는 그저 꿈 같은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분쟁 속 혼란 가운데 가족들과 헤어진 나스토는 엄마를 잃고 낯선 땅으로 피난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나스토는 그 과정에서 겪은 고통이 훗날 학교에 나갈 수 있는 기회로 치유되리라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엄마가 꿈쩍이 보고 싶어요. 엄마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들이 참 많아요. 하지만 저는 엄마가 기뻐하고 저를 자랑스러워 할 거라고 믿어요.” 라며 나스토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곳에서 학교에 나가게 되어 정말 감사해요. 우리는 교육을 받아야 해요. 그리고 앞으로 교육을 통해 배운 것을 최대한 잘 활용하기 위해 노력해야겠죠. 교육은 삶을 바꿀 수 있는 기회니까요.”

나스토와 그녀의 학급 친구들이 유엔난민기구로부터 받은 도움은 단순히 학교에 나갈 수 있는 수준에 그치지 않습니다. 유엔난민기구가 제공한 태양열 손전등을 이용하여 밤에도 공부를 계속하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장학금을 지원 받아 학업을 계속 이어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지지가(Jijiga) 난민촌에서 학교에 다니고 있는 나스토와 그녀의 친구들은 모든 과목에 걸쳐 훌륭한 성적을 받고 있습니다.



재정보고



유엔난민기구의 예산은 2010년부터 시행된 글로벌 수요조사(Global Needs Assessment, GNA)*를 바탕으로 기획되며 본부의 검토와 집행이사회(ExCom)의 승인을 거쳐 확정됩니다. 2013년 유엔난민기구의 필요예산은 미화 53억 3,500만 달러였습니다.

2013년 한 해 동안, 유엔난민기구는 각국 정부, 정부간 기구, UN, 민간(개인, 기업, 재단 등) 부문에서 받은 아낌없는 지원 덕분에 미화 29억 6,500만 달러의 후원금을 조성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필요예산의 60%에 그친 금액이었습니다.



필요예산 및 수입

필요예산

2013년 글로벌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확정된 필요예산은 2012년보다 25% 증가한 미화 53억 3,500만 달러였습니다. 특히, 7개의 신규 긴급 지원 프로그램(시리아 긴급구호, 콩고민주공화국 긴급구호, 미얀마 지원, 예멘 국내실향민 긴급구호, 중앙아프리카공화국 긴급구호, 차드 거주 수단 난민 긴급구호, 필리핀 태풍 하이옌 긴급구호) 등이 추가되면서 필요예산이 기존 승인된 39억 2,400만 달러에서 크게 증가했습니다.

* 글로벌 수요조사(Global Needs Assessment, GNA) : 각 지역사무소가 담당하는 국가별 보호대상자의 수와 사업필요성을 조사하고 그 과정에서 개입된 정부, UN기구, NGO와의 협의를 거친 후 완성됩니다. 그 후 2개년간 보호대상자들을 통합적으로 지원 할 수 있는 사업 및 예산을 구성하고, 본부의 사업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을 고려한 세밀한 검토를 마친 후 최종적으로 집행이사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수입

유엔난민기구의 후원금은 자발적으로 운영됩니다. 2013년에는 2012년보다 6억 4,700만 달러가 증가한 미화 29억 6,500만 달러의 후원금이 모였습니다. 이 자기에 2012년 이월금, 조정, 환율 및 그 외 출처로부터 얻은 순이익 등이 더해져 2013년 유엔난민기구의 활동을 위해 사용 가능한 전체 기금은 총 미화 32억 3,400만 달러였습니다. UN 본부로부터 한 해 활동을 위해 지원받는 UN 분담금 조성 예산은 2~3% 정도입니다.

구분	비용 (단위: 미화 달러)	
2013년 자발적 후원금	정부 및 정부간 기구, 민간후원	28억, 2,420만
	UN 기금*	9,489만
	UN 분담금으로 조성된 예산**	4,632만
2012년 이월금	2억 3,610만	
조정, 환율 및 그 외 출처로부터 얻은 순이익	4,000만	
기타	9,249만	
2013년 사용가능 총금액	32억 3,400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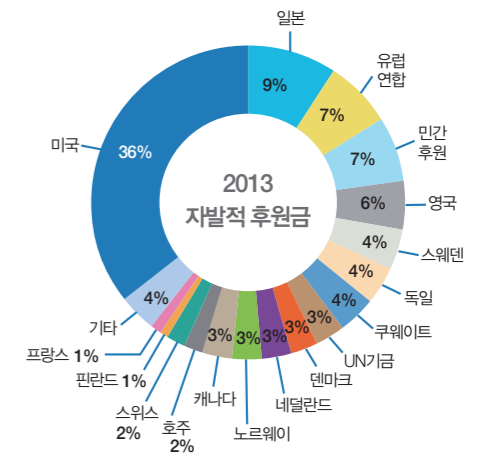
* UN 기금(UN-managed pooled and trust funds)

** UN 분담금으로 조성된 예산(UN regular budget)

자발적 후원금

정부 및 정부간 기구

2013년 유엔난민기구가 모금한 미화 29억 6,500만 달러 중, 미화 28억 2,420만 달러는 각국 정부 및 정부간 기구, 민간영역에서 자발적 후원으로 조성된 기금입니다. 특히 각국 정부 및 정부간 기구로부터 미화 26억 달러 이상을 모금하였는데, 기금의 52%는 미국, 일본, 유럽연합에서, 82% 이상은 상위 10개국 및 국가연합체에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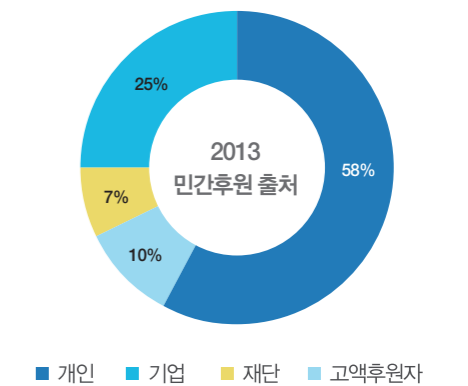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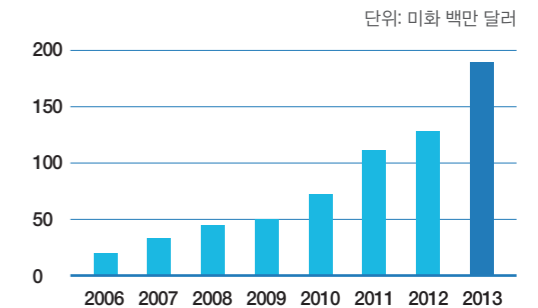
민간후원(Private Sector Fundraising)

2013년 유엔난민기구는 여러분들과 같은 개인 기부자들을 포함한 민간후원*을 통해 총 1억 9,100만 달러를 모금하였습니다. 이는 2012년보다 46% 상승한 수치이며, 우측 막대 그래프는 2006년 이래 지난 7년간 900% 이상 증가하고 있는 민간후원의 확대를 보여줍니다.

국가별 민간영역 후원 기반이 증가되고 확대되었으며, 특히, 네덜란드, 스페인, 호주, 일본, 이탈리아, 아랍에미리트, 독일, 카타르, 미국, 대한민국의 민간영역 조성 기금이 상위 10위권을 차지했습니다. 2013년, 전년보다 30% 증가한 82만 2,000명의 개인 기부자들이 미화 1억 1,050만 달러를 난민보호 사업에 후원하였고, 이는 민간후원에서 가장 큰 부분 (58%)을 차지했습니다. 기업 파트너, 재단과 고액후원자로부터의 모금을 포함하는 리더십 기빙(Leadership Giving) 프로그램에서는 총 미화 8,040만 달러가 조성되었습니다.

* 민간후원(Private Sector Fundraising, PSFR): 각국 정부 및 정부간 기구가 아닌 개인, 기업, 재단, 고액후원자 등 민간 기부자 및 단체로부터 조성된 기금을 지칭합니다.

연도별 민간후원 2006~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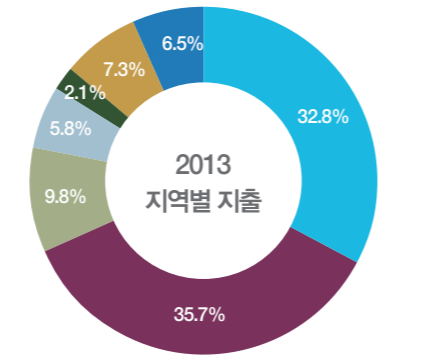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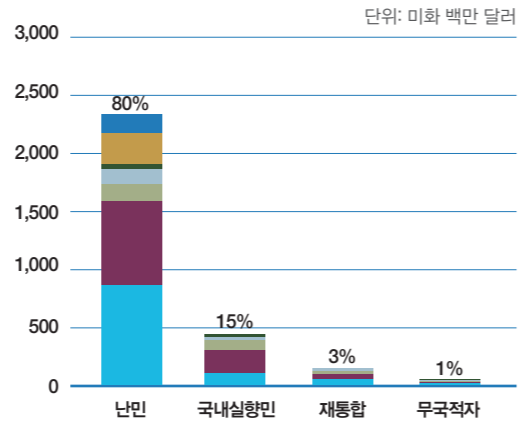
지출

2013년 유엔난민기구는 총 미화 29억 7,100만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프로그램별로 살펴보면 난민 프로그램에 23억 9,300만 달러를 사용하면서 총 사업비의 80%를 지출했습니다. 이는 같은 프로그램을 위한 작년 지출보다 29% 증가한 것입니다. 국내실향민 사업에 대한 지출은 2012년에 비해 31% 증가해서 4억 5,100만 달러(15%)를 기록했습니다. 재통합 사업과 무국적자 사업에 대한 지출은 각각 9,100만 달러(3%)와 3,600만 달러(1%)를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구분해 보면, 아프리카 대륙에서의 지출은 2012년에 비해 8% 감소하여 전체 사업비 지출에서 33%를 차지했습니다.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에서의 지출은 2012년보다 14% 증가한 36%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지출의 증가치는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지속 또는 증가되고 있는 난민의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에서의 지출은 13%에서 10%로 감소한 반면, 유럽과 미주 지역의 지출은 각각 6%, 2%를 차지하면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글로벌 프로그램에 사용된 자금은 7%로 작년과 비슷하게 유지되었고, 본부의 지출은 8%에서 6.5%로 감소했습니다.

*** 글로벌 프로그램** : 전 세계의 다양한 난민보호 활동과 운영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정보 통신 시스템 관리, 난민 등록 및 지식 데이터 관리, 민간모금 사업, 직원 교육 및 현장 안전 관리, 보급 관리, 재정적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업무를 포함합니다.

2013 프로그램별 지출



- 아프리카
- 중동 및 북아프리카
- 아시아 및 태평양
- 유럽
- 미주
- 글로벌 프로그램*
- 본부

* 글로벌 기업 유니클로(UNIQLO)의 후원 사례

글로벌 의류 업체인 기업 유니클로(모회사 Fast Retailing Co., Ltd)가 시리아 긴급구호 활동을 위해 미화 100만 달러를 후원했습니다. 이번 후원은 시리아 긴급구호를 위해 유엔난민기구의 기업 파트너들이 전달한 현금 지원 중 가장 큰 규모이며, 후원금은 시리아 내전으로 집을 잃은 국내 실향민 400만 명과 주변국에서 피난 중인 난민 200만 명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유엔난민기구와 유니클로는 2006년부터 파트너십을 맺어 방글라데시, 에티오피아, 세르비아, 타지키스탄을 포함한 25개국에 거주하는 수백만 명의 난민들에게 헌 옷을 기증해왔으며, 유니클로는 동아프리카 긴급구호를 위해 2011년 미화 200만 달러를 기부한 것을 포함하여, 시리아 및 요르단에 머물고 있는 시리아 국내실향민과 난민들을 위해 2011년부터 의류 22만 벌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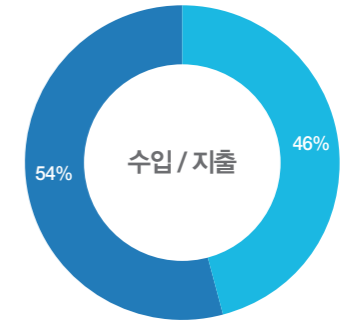
한국 모금 현황

전 세계 난민보호 활동은 여러분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2013년에도 정부 및 민간에서 참여해주신 여러분 덕분에 더욱 많은 난민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2013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대한민국 정부 및 민간에서 모아진 후원금 총액은 미화 11,327,226달러이며, 전 세계 모금액과 지원 상세 보고 및 내역은 한국대표부 홈페이지 (<http://www.unhcr.or.kr/unhcr/html/001/001003002.html>)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정부 후원금

2013년 한국 정부는 유엔난민기구에 총 미화 5,946,688달러를 후원했고 아래와 같이 사용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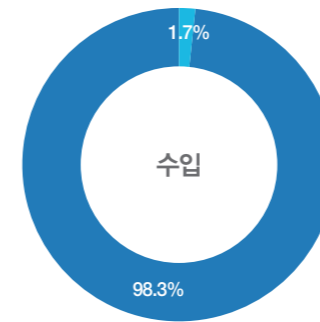
- 비징정 기탁 | 유엔난민기구 연간 사업 계획에 따른 지원
- 지정 기탁 | 시리아, 필리핀 등 인도주의 위기 상황에 따른 추가 대응 사업과 국제기구 초급전문가(JPO) 프로그램 지원 등



총 5,946,688달러

민간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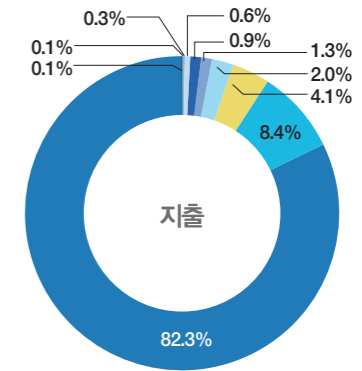
2013년 개인, 기업, 재단 등 민간 부문에서는 아래와 같이 기금이 조성되고 사용되었습니다.



총 5,888,315,630원

구분	2012년	2013년	단위: 원
개인	2,943,617,923	5,791,094,933 (98.3%)	
법인 (기업*, 단체 등)		97,220,697 (1.7%)	

*** (주)경화상사**: (주)경화상사의 후원금은 난민 어린이 350명이 1년간 초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소중한 도움이었습니다. 전 세계 난민의 삶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거듭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주)경화상사와 임행준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총 5,888,315,630원

구분	금액 (원)	비율 (%)
가장 필요한 곳에	4,847,875,209	(82.3%)
SBS희망 TV_케냐난민촌	496,686,000	(8.4%)
SBS희망 TV_공고민주공화국	239,624,700	(4.1%)
시리아 긴급구호	118,019,459	(2.0%)
긴급구호활동	75,124,599	(1.3%)
필리핀 긴급구호	50,241,427	(0.9%)
동아프리카 긴급구호	33,664,236	(0.6%)
나인밀리언캠페인	16,890,000	(0.3%)
MBC W 기금	7,240,000	(0.1%)
기타 (지정기탁, 현물지원 등)	2,950,000	(0.1%)

한국대표부 활동보고

3월 난민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는 2013년 7월 난민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 3월 20일 법무부가 개최한 '난민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하여 공청회에서의 비호신청 절차, 난민지위심사(RSD) 평가 기준에 대해 발표했고, 난민신청자에 대한 각종 처우, 통역인 제공 등 절차적 지원, 재정적 난민 등에 대한 문제를 관련 전문가들과 논의했습니다.



8월 거리홍보모금 대전 런칭

그동안 서울,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유엔난민기구 거리홍보모금 활동이 2013년 8월 대전에서도 시작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전국 각지로 뻗어가는 유엔난민기구 거리홍보모금 활동의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합니다.



4월 더크 헤베커 한국대표부 새대표 부임

지난 4월 19일 더크 헤베커 대표가 새로 부임했습니다. 헤베커 대표는 지난 20여 년간 미얀마,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등 여러 지역 유엔난민기구 사무소를 거쳐 서울 을지로에 위치한 한국대표부 사무소 대표로서 소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9월 TV 공익광고로 만나는 <원미닛 - 1 Minute > 영상

각종 TV 케이블 채널에서 방영중이던 유엔난민기구의 <스틸 칠드런 - Still Children> 홍보영상에 더불어, 지난 8월 3개의 채널을 시작으로 9월에는 5개 채널에서 <원미닛 - 1 Minute> 홍보영상을 방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짧은 시간동안 모든 것을 잃고 빈손으로 고향을 떠나야만 했던 난민 가족들의 절박한 상황을 영상으로 전달하면서, 보다 많은 대중들의 후원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5월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난민고등판무관 방한

5월 14~15일 유엔난민기구의 수장인 구테레스 유엔난민고등판무관이 방한하여 외교부, 법무부 관계자들과 인도적 위기 대응을 위한 파트너십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기구가 직면하고 있는 전 세계 난제들, 특히 시리아 난민 지원을 강조하였습니다.



10월 대한민국, 유엔난민기구 집행위원회 의장국 선출

9월 30일~10월 4일 열렸던 제 64회 유엔난민기구 집행위원회(EXCom) 총회에서 대한민국이 2013년 집행위원회 의장국으로 선출됨에 따라 주재네바 대한민국 대표부 최석영 대사가 집행위원회 의장에 임명되었습니다.



6월 세계 난민의 날 행사

UN이 지정한 세계 난민의 날을 기념하여 여러 협력 단체들과 6월 15일~21일 개최한 난민주간 행사를 통해, 전 세계 난민 현황을 대중에게 알리고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유엔난민기구의 활동을 지원하고 난민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국회의원 33명으로 구성된 'Friends of UNHCR'이 6월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그 문을 열었습니다.

11월 난민 컨퍼런스 및 포럼, 워크숍 개최

유엔난민기구는 협력 기관들과 함께 '무국적과 이주배경 아동 출생등록에 관한 컨퍼런스', '난민을 위한 포괄적 지원과 그 기준' 포럼,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를 통한 난민 인정자와 신청자 처우' 관련 국제 워크숍 등 각종 행사를 개최 및 지원하였습니다.



7월 한국대표부 홈페이지 새단장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의 홈페이지를 보다 체계적이고 편리하게 새단장하였습니다. 전 세계 난민현황과 유엔난민기구의 국내외 활동, 난민 사진과 영상, 난민상담 정보 등 방문자의 관심 정보와 필요 사항을 좀 더 쉽고 체계적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구성과 내용을 새롭게 개편하였습니다. www.unhcr.or.kr



12월 나눌수록 커지는 기쁨, 후원금 증액 캠페인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는 2013년 6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 후원금 증액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두 차례의 캠페인을 통해 1,000명이 넘는 후원자 분들께서 후원금 증액에 흔쾌히 동참해 주셨고, 200여 명의 후원자님들은 일시 후원에 참여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참여로 더 많은 난민 가족들이 필요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었습니다. 2014년 후원금 증액 캠페인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피부색과 생김새, 지역과 언어, 종교와 방식은 달라도
우리는 모두 한 곳을 바라봅니다.

작은 보호의 손길들이 모여 만드는 커다란 변화,
여러분과 함께이기에 가능했습니다.

한 해 동안 난민가족의 곁을 지켜주신 후원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

